

## 장상훈(부림사건<sup>1)</sup> 피해자) 1차 구술

1. 구술자: 장상훈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8월 23일
5. 구술장소: 경기도 부천 소사구 베스티안병원 별관
6. 구술분량: 05분3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무현 변호사에 대한 인상과 출소 후의 만남

면담자 : 부림[사건] 때 처음 뵈었을 것 같아요.<sup>2)</sup> 처음 뵈었을 때 느낌이라고 할까, 첫 인상 어떠셨어요?

구술자 : 일단 변호사님이 좀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때 변호사가 네 분<sup>3)</sup> 계셨는데 이흥록<sup>4)</sup> 변호사는 이름을 좀 들었었고 노무현 변호사는 그때 처음 뵈었지만, 법정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진지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교도소 안에서 통방(通房)을 하잖아요. 제가 잡범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잡범들이 제 변호사가 누구냐고 묻길래, 노무현 변호사라고 그랬더니, '노무현 변호사가 그 중 한 분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노무현 변호사가 좋은 분이 다'하고 잡범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돈 없고 이런 사람들 노무현 변호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면 돈 거의 안 받고도 변호해준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잡혀 들어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주머니가 청

- 
-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 2) 구술자는 1981년 10월 부림사건 2차 구속자가 되면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 3) 부림사건 변호인단은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다섯 명이였다.
  - 4) 1970년대부터 부산 지역을 대표해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운동가로 이 책에서 자주 거론된다. 노무현과 부산 공해문제연구소,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에 참여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다.

소해주고 변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깐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의 첫인상은 이 분이 우리처럼 의식화되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굉장히 착한 분이다. 굉장히 착하면서 굉장히 다혈질인 [웃음] 그런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분이 어느 날 우리(부림사건 피해자) 만나가지고 어느 날 똑딱 떨어져가지고 인권변호사로 변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분이 이 세상의 고민을 갖다가 함께 풀어나가려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부터 그 분 가슴속에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걸 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분이 그냥 그랬던 분이 아니고 원래 그 분 본성이 그런 분이었어' 이런 이해를 하게 됐죠.

[부림사건] 변론 중에 그런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자기희생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하는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라고 칭한다고 하면 뭐, 이 세상에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다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 아니냐', '나도 만약, 정말 이 젊은이들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웃기는 게, 그때 변호사가 네 분이었고 또 저를 갖다가 담당해준 변호사님 계셨는데, 정작 그 분한테 가서는 인사도 안 하고 달랑 노무현 변호사님한테만 찾아갔어요. 아마 그렇게 한데는 그 과정에서 제 담당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많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출감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때 내가 어렵풋하게 기억나는 건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서, 기죽지 않게 해주실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더 힘내고 더 세상하고 부딪치면서 살아라하는 이런 용기를 주실려고 했던 느낌이 들고.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아마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상훈 씨는 어찌다가 이렇게 하게 됐냐' 재판과정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서로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도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좀 분위기가 익사이팅(exciting) 해지니깐 변호사님 성격대로 지나가는 말투 비슷하게, '아나도 마, 상훈 씨처럼 젊으면 길에 나가서 한판 붙어버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1, 2)년 지나니깐 부산에 싸움나면 변호사님이 최고 앞장서신다더라고요. [웃

음]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는구나 하고 나중에 생각을 했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거제 출생

1977.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1981.10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2.02 집행유예로 출소

1983.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 개업

1989. 거제신문 창간

1995. 거제 시의원 당선

2002. 새천년민주당 경남 거제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열린우리당, 거제)

1981년 부림사건 2차 구속자가 되면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1982년 2월 부림사건 구속자 23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1983년 고향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을 차렸다. 1986년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강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과 노동법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과 같이 현장을 지켰다. 1995년 거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거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무현을 도왔다.